
	보 도 자 료		
	배포 일시	2018. 1. 15.(월) 총 2매 (본문 2매)	
담당 부서 주거복지기획과	담당자	• 과장 윤중수, 사무관 이민규 • ☎ (044) 201-3355, 3354	
보 도 일 시		2017년 1월 1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5.(월) 15:00 이후 보도 가능	

「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」 발표 후 임대등록 급증

17년 한해 개인 6.2만명이 19만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
대책 발표한 12월에는 전년대비 117% 증가한 7,348명 등록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은 작년 12월 13일 「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」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,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가 '16년부터 '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(건축행정정보시스템)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, 개인기준으로
 - 임대사업자수는 '16년 19.9만명에서 '17년에는 6.2만명*(31.2%)이 증가하여 총 26.1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(법인 포함시 '16년 20.2만 → '17년 26.5만)
 - * 17년 등록 말소자 약 2천명을 고려할 경우 순증은 6.0만명임
 - 임대주택호수는 '16년 79만채에서 '17년에는 19만채*(24.1%)가 증가하여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(법인 포함시 '16년 99만채 → '17년 124만채).
 - * 다가구주택은 실별로 구분하지 않고 1동을 1호로 계산한 값임

<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>



	2016년	2017년	증감 현황	
			증감	증가율
등록 임대사업자	19.9만명	26.1만명	6.2만명	31.2%
등록 임대주택	79만채	98만채	19만채	24.1%

- 월별로 살펴보면, 작년 8월 8.2대책 발표이후,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,429명이 등록하여 '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,22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,
-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'17년 한해 최대치인 7,348명이 등록하였으며, 이는 '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(3,386명)에 비해 117%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.

< '17년 월별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(단위 : 명) >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소계
3,799	3,861	4,363	3,688	5,032	5,219	4,535	6,311	7,323	5,006	6,159	7,348	62,644

- 한편, 국토부는 「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」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하고, 임대등록을 주소지의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,
-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,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1.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.
- 아울러,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은 마이홈센터 (☎1670-7004, www.myhome.go.kr)에서 안내하고 있으며,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이민규 사무관(☎ 044-201-335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